



MARCH 1999

대한노인정신의학회보

The Newsletter of
Korean Association for Geriatric Psychiatry

발행처: 대한노인정신의학회 464-800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단발리 696-6 연세의대 광주세브란스정신병원 TEL: 0347-765-0442 FAX: 0347-761-7582
발행인: 유계준 / 편집인: 정은기 / 등록번호: 제 2-124 호 / 인쇄인: 김명길 / 인쇄처: 태평 중앙문화사 TEL: 717-5511 (대) FAX: 717-5515

권 두 언

노인에게 새로운 도전과 소망을!

유계준 (내한노인정신의학회 이사장)

최근 노인에 대한 관심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급기야 UN에서 도 1999년도를 '세계노인의 해'로 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전반적인 의학 기술향상으로 말미암은 평균 수명의 연장에 주된 원인이 있을 것이다. 즉 노인인구가 7%에 이르는 노령화 사회가 이미 선진국에서는 1960년대에 접어들기 시작했으며 미국, 유럽 및 일본은 1990년대 초에 10%를 넘어선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전체인구의 6.5%에 불과하지만 2000년 대 초에는 7%에 달할 것으로 보여 곧 노령화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보이며,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인구 구조의 특성상 일단 노령화시대에 접어들면 곧 고령화 사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에게는 질병, 상실, 소외, 고독감 등의 문제와 건강에 대한 문제가 가장 절실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노인성 치매, 우울증을 비롯한 노인성 정신질환은 환자자신은 물론 가정,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양식되고 있다.

노인정신질환에 대한 선진국의 대책을 보면, 미국의 경우 대표적인 노인성질환인 치매에 대해서는 이미 통계적으로 1946~1964년의 베이비붐 때 출생한 7천7백90만명의 미국인들이 노년기에 접어드는 21세기 초에는 약 1천4백만명 정도가 알츠하이머 병의 증세를 겪게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시급한 정책 마련을 해야 한다며 「미국의학회」를 통해 적극적인 대책을 벌이고 있다. 한편 의학적인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의 호칭문제만 보더라도 가까운 일본에서는 이미 10년전에 50~60대의 별칭 호칭인 老年(노년)을 시대감각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익고, 속이 과えた다는 實을 따서 實年(실년)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또한 유럽연합에서도 노인단체들이 나서 노년(Old Age) 소리가 듣기 싫다며 시니어 시티즌(Senior Citizen)으로 바꾸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불과 1년 후로 성큼 다가온 2000년에 노인인구 7%여상의 노년기사회에 접어드는 우리는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 나아가 '효(孝)'는 인간의 본연자세이며, 우리는 결국 노인이 되지 않는가?를 반문해보면 비록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노인대책은 준비되어야 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본다.

사실상 우리시대의 노인은 조국의 발전에 주역으로서 가장 희생적이었으나, 제대로 된 안전망 (Safety Network) 하나 구축하지 못하고, 존경과 위엄과 인정보다는 IMF 사태에 직면하여 다시금 냉대의 소외계층으로 취급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새로운 안식으로 노인인권 및 명예회복에 다시 한번 진정한 용기를 불어넣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여기에 친정 대한노인정신의학회의 사명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된다.

친애하는 대한노인정신의학회 회원 여러분! 저희 대한노인정신의학회도 다가온 21C에 노인에게 새로운 소망을 줄수 있도록 정보화 및 지식사회로의 변화에 새롭게 도전하고 창조적 흐름에 주역이 됨시다. 그리고 나아가 노인의학에서 깨달은 새로운 가치를 통해 인간의 윤리, 도덕 참된 삶의 진리를 일깨우도록 합시다.

대한노인정신의학회 1999년도 주요학술대회 일정 - 계획안-

	연 제 및 연 자	일시 및 장소
■ 학술대회 ■ • 춘계학술대회	I. 심포지움 : 노인정신의학의 역학 ① 역학의 연구방법론 - 조맹제(서울의대) ② 역학조사의 현황 - 박종한(내구호성가톨릭의대) 연병길·서국희(한림의대) 최윤경(고려의대) 변용찬(보건사회연구원) 함봉진(숙명복음병원) 김기현(연세의대) 홍진표(글산의대) II. 연제발표	• 일 시 • 1999년 4월 23일(금) 오후 1:30~6:00 • 장 소 •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의과학연구원
• 추계학술대회	I. 심포지움 : 혈관성 지매 ① 역학 및 위험인자 ④ 뇌영상학적 소견 ② 병인 및 발발 기전 ⑤ 치료 ③ 학습양상 및 진단 II. 특강 - 외국연자 III. 연제발표	• 일 시 • 1999년 10월 1일(금) 오후 1:30~6:00 • 장 소 •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의과학연구원
■ 학술집담회 ■ • 춘계 학술집담회	노인환자의 행동 및 인지기능 평가 ① 정신분열병에서 지연성 운동장애의 인지결합의 연관성 - 장태섭(동남정신병원) ② 노인환자의 행동증거 - 전진숙(교신의대) ③ 노화에 의한 신경인지기능의 변화 - 연병길(한림의대)	• 일 시 • 1999년 3월 19일(금) 오후 6:30~8:00 • 장 소 • 교신대학교 복음병원 3동 P1회의실
• 추계 학술집담회	노인성 치매환자의 임상적 접근 ① 치매환자에 동반된 medical condition - 김율희(용인효자병원) ② 노인성 치매의 정신의학 - 김기웅(용인효자병원)	• 일 시 • 1999년 9월 8일(금) 오후 4:00~5:30 • 장 소 • 용인효자병원
■ Workshop ■ • 춘계 전공의 Workshop	노인에게 혼란 정신질환과 그 대책 ① 노인성 시매 - 오병훈(연세의대) ② 노인성 우울증 - 이민수(고려의대) ③ 노인성 불안장애 - 오강섭(성균관의대) ④ 노인성 수면장애 - 김 린(고려의대) ⑤ 노인성 상신신체장애 - 이 철(가톨릭의대)	• 일 시 • 1999년 4월 23일(금) 오전 9:30~12:00 • 장 소 •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의과학연구원
• 추계 전공의 Workshop	노인의 진단 및 평가 ① 노인의 정신과적 진단 및 평가 ② 노인의 신경과적 진단 및 평가 ③ 노인의 내과적 진단 및 평가 ④ 노인의 뇌영상학적 진단 및 평가 ⑤ 노인의 신경인지기능의 진단 및 평가	• 일 시 • 1999년 10월 1일(금) 오전 9:30~12:00 • 장 소 •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의과학연구원

[연락처] [총무이사회 연락처] 오 병 춘(총무실행여사)

TEL : (0347) 763-0442 FAX : (0347) 761-7582 E-mail : drobh@chollan.net

[학술이사회 연락처] 연 병 길(학술실행여사)

TEL : (02) 224-2268 FAX : (02) 487-0544 E-mail : knpa@www.hallym.or.kr

[교육이사회 연락처] 이 민 수(교육실행여사)

TEL : (02) 920-5354 FAX : (02) 923-3507 E-mail : leeminsu@unitel.co.kr

1999년도 춘계학술대회 및 전공의 워크샵

□ 일 시 : 1999년 4월 23일(금) 13:30 - 18:00

□ 장 소 :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의과학 연구소

인사말 : 유 계 준(이사장)

사 회 : 연 병 길(한림의대)

심포지엄 노인정신의학의 역학

13:30 - 14:00 역학의 연구 방법론
 14:00 - 14:20 경 북 영일군
 14:20 - 14:40 경기도 연천군
 14:40 - 15:00 전 국
 15:00 - 15:20 질문 및 토의
 15:20 - 15:40 Coffee Break

좌 장 : 곽 동 일(고려의대)

조 맹 재(서울의대)
 박 종 한(대구호성가톨릭의대)
 서 국 회(한림의대)
 변 용 찬(보건사회연구원)

15:40 - 16:00 서 을 상계동
 16:00 - 16:20 경기도 광주군
 16:20 - 16:40 경기도 과천시
 16:40 - 17:00 경 북 울산시
 17:00 - 17:20 경기도 광명시
 17:20 - 17:40 충 남 아산시
 17:40 - 18:00 질문 및 토의

좌 장 : 이 정 호(인제의대)

함 봉 진(축령복음병원)
 김 기 현(연세의대)
 최 윤 경(고려의대)
 홍 진 표(울산의대)
 김 동 현(한림의대)
 연 병 길(한림의대)

전공의 Workshop 노인에게 흔한 정신질환과 그 대책

사 회 : 정 은 기(국립서울정신병원), 좌 장 : 기 배 석(중앙의대)

09:00 - 09:30 등 록
 09:30 - 10:00 노인성 치매
 10:00 - 10:30 노인성 우울증
 10:30 - 10:45 질문 및 토의
 10:45 - 11:00 휴식

오 병 훈(연세의대)
 이 민 수(고려의대)

11:00 - 11:30 노인성 불안장애
 11:30 - 12:00 노인성 수면장애
 12:00 - 12:15 질문 및 토의

좌 장 : 이 상 연(적십자병원)

오 강 섭(성균관의대)
 김 린(고려의대)

- 주 관 : 대한노인정신의학회
- 후 원 : 한국애자이 · 한국노바티스주식회사

• 총무이사회 소식 •

- 대한노인정신의학회 1998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가 1998년 10월 9일 오후 1~6시 서울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의과학 연구원에서 회원 1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추계학술대회는 심포지움, 특강, 연제발표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심포지움 주제는 한국노인정신의학의 현재와 미래, 특강은 노인복지정책과 한국노인정신의학의 미래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공의 워크샵은 노인성 치매의 최신지견으로 이날 오전 9~12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 추계학술대회에 이어 정기총회가 진행되었으며, 정기총회에서는 대한노인정신의학회 1999~2000년도 회기를 이끌 새로운 임원진으로 유계준 회원, 이정호, 박종한, 이상연 회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동안 회칙개정위원회에서 준비해왔던 대한노인정신의학회 회칙개정이 통과되어 회장중심제도에서 이사장중심제도로 구조조정되었으며, 고문으로 곽동일, 신석철, 이형영 회원이 추대되었고, 임기 2년의 초대이사장으로 유계준 회원, 차기이사장으로 이정호 회원, 부이사장으로 박종한, 이상연 회원 및 감사로 한동대, 정인과 회원이 선출되었습니다.
- 제일약품주식회사 대표이사 한승수, 에자이(주) 대표이사 야마모토 게이지와 학술집담회를 지원해 준 충남의대 신석철, 전남의대 이형영, 대구효성가톨릭의대 박종한, 고신의대 전진숙 교수님께 감사패 수여가 있었습니다.
- 신임 유계준 이사장은 1999년도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사업계획으로 '효율적 관리업무를 위한 전산화작업', '내실을 위한 학술활동 및 교육, 연구활동 강화', '국내외 노인관련 학회 및 단체와의 유대 강화' 및 '노인관련수가 개발'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실행이사로 총무이사 오병훈 회원, 학술이사 연병길 회원, 교육이사 이민수 회원, 기획이사 정은기 회원, 섭외이사 기백석 회원, 섭외이사 이 철 회원이 선출되었고, 학회지 편집위원장으로 조맹재 회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정기총회에 이어 '노인정신의학' 출판기념회가 있었으며, 곽동일 편찬위원장으로부터 그 동안의 편찬과정과 교과서 발간을 위해 수고해주신 중앙문화사 김영길 사장님께 감사패수여와 특히 책임감사로 수고해주신 연병길, 이민수 회원에 대한 감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 1999년도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 종합학술대회(1999년 7. 6~7. 26,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 개최)에 의학분과로 노인성 질환의 현황 및 예방과제가 선정되었으며, 대한노인정신의학회는 한국인구학회와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희 학회에서 발표할 연제는 국외 논문발표 4편, 국내 2편이며, 특별강연 1편 연자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에서 선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으로부터 대한노인정신의학회의 학술지 - 노인정신의학 - 평가사업과 관련 안내가 있었으며, 노인정신의학은 '98년 10월 14일 이후 접수되었기에 99년 3월경 평가를 시작하여 6월 중으로 통보해 준다는 공문이 '99년 2월 22일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학술지평가 신청요강 변경에 따른 협조의뢰가 있어(3. 10) 대한노인정신의학회 편집위원장에게 발송하였습니다.
-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제 1차 실행이사회가 1998년 11월 4일, 제 2차 실행이사회가 1999년 2월 3일 조찬모임으로 열렸으며, 향후 노인정신의학회의 발전방향에 관한 각 실행이사로부터의 사업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섭외이사회에서는 시민건강강좌 홍보를 위해, 사단법인 온누리건강가족복지회와 1999년 일년동안 10회의 시민강좌를 서울, 부산, 청주, 춘천, 용인 등지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신임 임원진 전체 평이사회 및 상견례가 1998년 12월 1일 한국회관에서 37명 임원진 거의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있었으며, 노인정신의학회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한 회원간의 친목을 다졌습니다.

학술이사회 소식 ·

1999년도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춘계집담회 및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부산경남지부학회 월례집담회

- 일 시 : 1999년 3월 19일(금) 오후 6시 30분~8시
- 장 소 :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3동 P1 회의실

<p>6 : 30~6 : 40 인사말</p> <p>6 : 40~7 : 10 정신분열병에서 치연성 운동장애의 인지결합의 연관성</p> <p>7 : 10~7 : 40 노인환자의 행동평가</p> <p>7 : 40~8 : 10 노화에 의한 신경인지기능의 변화</p>	<p>사 회 : 오 병 훈 (연세의대) 유 계 준 (이사장) 노 재 영 (부산경남지부학회장)</p> <p>장 태 섭 (동남정신병원) 전 진 숙 (고신의대) 연 병 길 (한림의대)</p>
--	---

-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춘계학술집담회가 부산 고신대복음병원에서 부산·경남지부학회와 공동으로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서울 및 지방에서 참여해 주신 25명의 대한노인정신의학회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학술집담회 다음날인 토요일에는 대한노인정신의학회와 부산·경남지부학회 회원간의 친선 골프대회가 열렸습니다.
- 보건의료기술 연구기획 평가단으로부터 온 중점공동연구과제 공모에 대한노인정신의학회 학술이사회에서는 1) 노인정신장애 - 치매와 우울증의 역학, 진단, 치료, 2) 신경인지기능 평가 및 표준화 - 한국인의 전산화 신경인지기능 평가도구의 개발 및 표준화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에서 주관하는 1999년 7월 6일부터 7월 26일까지 열리는 세계한민족 과학기술자 종합학술대회 의학분과에서 한국인구학회와 공동으로 '노인성 질환의 현황 및 예방의 과제'를 가지고 국외 연자 및 국내 회원들이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 1999년 세계한민족 과학기술자 종합학술대회

주 관 :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일 시 : 1999년 7월 6일~7월 26일

· 기획이사회 소식 ·

1. '98년도 신임위원회 토의내용 공지
 - 1) 대한노인정신의학회 '99년도 사업계획
 - 2) 국제노년학회 참가
2. 학회회보 발간업무 토의

· 섭외이사회 소식 ·

1999년 시민교육강좌

- 주 관 :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사단법인 온누리건강가족복지회
- 주 제 : 치매예방과 건강한 노후생활

노인에게 효도와 공경을

■ 일정 :

일자	장소	전화	연자
2월 27일	구로노인종합복지관	838-4600	오병훈 교수 (연세의대)
3월 19일	동구종합사회복지관	(051) 633-3367	김현수 선생 (부산동인병원)
4월 21일	남부노인종합복지관	888-6144	기백석 교수 (중앙의대)
5월 15일	용암종합사회복지관	(0431) 293-9191	강홍조 원장 (초정노인병원)
6월 26일	하안종합사회복지관	894-0720	정인과 교수 (고려의대)
9월 18일	북부노인종합복지관		곽동일 교수 (고려의대)
10월 23일	효자종합사회복지관	(0361) 262-2390	연병길 교수 (한림의대)
11월 27일	월곡종합사회복지관	943-0251	이정호 교수 (인제의대)

편집위원회 소식 ·

편집위원회 토의사항

1. 노인정신의학 제3권 제1호의 체제는 특집, 종설, 원저 및 중례로 한다.
2. 학회지 발간 시기를 5월과 11월에서 6월과 12월로 변경한다.
3. 노인정신의학에 게재할 원저 투고 요청 : 투고규정안내 참조

• 회원 투고 •

치매환자를 치료하여 ·

김 현 수 (부산 동인병원, 노인병동담당)

불치의 병으로 취급되어온 치매환자를 치료하기 시작하면서 나 자신 나름대로의 자문자답을 많이 하게 되었고, 또한 그 의문에 대한 답들은 나 자신의 가치관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하였다. 환자를 병원에 모시고 오는 보호자의 기대와 진료실에서 환자를 대하는 나 자신의 기대가 일치하기란 어려웠고, 이때부터 보호자와의 전쟁(?)이 시작되며 '일치'란 한낱 회망사항에 불과하게 된다. 치료가 시작되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환자의 호전이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치매환자의 경우는 입원자체가 환자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호전은커녕 악화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뿐만 아니라, 환자의 증상중 특히 배회의 경우 어느 정도 행동의 통제가 필요하기에 폐쇄병동으로 옮기면서 보호자와의 전쟁은 본 경기에 접어들게 된다. "...왜 노인을 가두어 놓느냐?...", "...증상의 호전은 왜 없는 것인가?..."라는 말은 양반에 속하고 심할 경우 "...당신의 부모라면..."등의 강한 반감과 함께 폭언, 욕설이 튀어나온다. 「잘되면 본전」이라는 말이 이런 경우에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나 한번쯤은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며 자신의 일에 회의감을 느끼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에 사로잡히곤 한다. 나 자신의 무능함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접한 치매환자중 일반적으로 10~15%에 달한다고 알려진 가역적 치매는 실제 치료상황에서 접하기란 무척 어려웠고, 치료에 대한 개념이 아예 '보호, 관리'로 고착되어 버린다.

현대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어 노인인구가 증가되었고, 이에 따른 노인성 질환인 치매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현재 노인성 치매에 대한 치료 및 연구는 의료나 복지계통에 종사하는 극소수의 전문가에게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언론이나 여러 대중매체를 통하여 치매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국민적인 홍보는 미흡한 상태라고 본다. 또

한 유교적 사고에 젖어있는 우리민족의 정서속에는 치매를 병이라고 보기보다는 노화의 과정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치료적 접근이 어렵고 환자에 대해 폐쇄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는 점도 이런 상황들을 악화시키고 있다.

1998년 2월 1일 노인전문병원으로 출발한 동인병원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발맞춰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에 100병상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치매, 중풍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을 진료하기 시작하였다. 기존 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내 집같은 분위기의 여러 가지 실내 장식과 신진 대사에 도움이 되는 황토방을 설치하여 나름대로 차별화에도 신경을 썼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시행착오가 나타나기 마련이며, 첫 1년이란 기간은 나를 포함한 진료진에게 많은 교훈을 주기에 충분하였다. 구체적으로 느낄수 있었던 문제점들로는 첫째, 환자치료와 함께 보호자의 교육 및 치료가 필수적으로 병행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보호자가 치매에 대해 무지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한 죄책감을 치료자에게 투사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둘째, 환자의 안전사고 위험성에 대한 철저한 보호자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특히 낙상에 의한 골절발생에 대해 몇 번이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셋째, 환자의 치료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다른 나라의 것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의 정서와 일치하지 않은 것들도 존재하기에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하며, 한국적 치료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환자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면서 치료적 접근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에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위한 여러 개의 차별화된 치료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본원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규적인 가족모임을 가짐으로서 치료자, 환자, 가족이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치료가 진행되고 있으며, 재단산하에 노인생활 과학연구소를 설치하여 환자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직은 모든 면들이 미흡한 걸음마 수준이지만 지역사회 노인의료의 시발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까지 치매환자를 진료하며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낀 것은 확실한 치료방법이 없는 치매환자에게 최첨단 고가의 의료장비나 약물에 의해 호전되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환자와 가족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사랑으로 봉사하는 마음자세가 더 중요하고 효과적인 치료적 접근이 아닌가 생각한다.

퇴근시간이 되어 진료실을 나서는 순간 항상 나의 머리속에 맵도는 말, '내가 치매환자라면...' 이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내일의 환자에 대한 태도를 가다듬는다.

끝으로 부족한 저에게 지면을 할애해 주신 노인정신의학회 유계준 회장님이라 모든 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 해외연수기 •

“Duke로의 추억여행”

김 영 돈 (을지의과대학 부속병원 정신과)

1997년 12월, 미국을 떠나올 때 우리 나라는 IMF가 시작된 직후였다. 환율이 2배 가까이 뛰어오르는 바람에 당시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떠나오는 비행기에 탄 기분이 마치 영화 "Independence Day"에서 폭발하는 백악관을 뒤로하고 가까스로 이륙하는 대통령 전용기를 탄 것처럼 아쉬움과 착잡함을 느낀지도 벌써 1년 6개월이나 흘렀는데 연수기를 써달라는 원고 청탁을 받고 다소 쑥스러운 생각이 들긴 했지만 사람은 추억을 먹고산다고 누군가가 얘기했듯이 추억을 더듬어 보기로 했다. 나는 1995년 12월부터 2년 동안 미국 North Carolina 주 Durham에 위치한 DUMC(Duke University Medical Center) 정신과내의 Brain Imaging Group(BIG)에 지금은 정신과의 주임교수로 있는

Dr. Krishnan의 초청으로 합류하게 되었다. 사실 나는 짧은 기간에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욕심으로, 기초학문의 research보다는 임상적 연구에 관심이 많았기에 이곳을 택하였다. 머무는 동안 나의 개인적 학문습득에 도움을 받은 것은 물론 내 아내와 세 아이에게도 인생의 멋진 경험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더구나 성격형성의 가장 중요한 시기였던 우리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환경과 교육환경 속에서 습득한 체험적 교육이 아이들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이었다. 원래 Duke대학은 담배 재벌인 Washington Duke의 아들인 James Buchanan Duke가 1924년에 만든 학교로서, 화강암으로 지어진 Georgian 건축양식의 East Campus 건물과 전통적인 영국 Gothic 양식의 West Campus 건물들이 연출해 내는 분위기는 유럽의 어느 고성의 그것과도 같다. 미국의 명문이라는 하바드나 존스홉킨스도 가보았지만 혼잡한 도시가운데에 위치한 그런 대학들에 비교할 때 숲 속으로 둘러 쌓인 Duke대학은 자연을 호흡하며 공부할 수 있는 복 받은 학교임에 틀림이 없었다. BIG에서는 Magnetic resonance imaging(MRI)을 이용하여 cerebral atrophy, increased cerebral spinal fluid, ventricular enlargement 등의 cortical atrophy 와 entire temporal lobe, hippocampus, amygdala, corpus callosum 등의 focal atrophy 그리고 deep white matter hyperintensities, periventricular white matter hyperintensities 등의 white matter의 pathologic change에 대한 연구와 myoinositol과 N-acetylaspartate를 검사하는 magnetic resonance spectroscopy(MRS)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였는데 나는 주로 Alzheimer형 치매환자의 amygdalohippocampal complex에 대한 MR volumetric analysis를 하였다. Alzheimer형 치매환자에서 sulci와 ventricle의 enlargement와 같은 MRI소견을 보여주지만 정상노화과정과의 변별력이 떨어지며 suprasellar cistern level에서의 측두엽의 양 uncal portion사이의 거리측정이 진단에 사용되어져 왔으나 임상에서 논란이 많았다. 그러나 Alzheimer형 치매환자의 측두엽에 대한 MR volumetric analysis상, 정상군에 비해 amygdalohippocampal volume의 40%정도의 감소는 초기Alzheimer형 치매환자의 특징적 소견이며 post-mortem autopsy를 하지 않고도 Alzheimer형 치매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MR volumetric analysis는 Point-Counting Stereological(PCS)technique과 컴퓨터를 이용한 Computerized Segmentation technique을 사용하였다.

또한 지도교수의 배려로 Dr. Steffen이 director로 있는 Neurologic Disorder Clinic에서 인지기능장애를 보이는 환자평가 및 치료과정을 참관하였고 일주일에 한번은 DUMC에서 약 30 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John Umstead Hosp.의 알쓰하이머 환자들의 사례집담회에 참가하였는데, 지금은 Stanford로 자리를 옮긴 80년대 초 우울증에 대한 Dexamethazone Stimulation Test(DST)연구로 유명했던 Dr. Carroll이 주관하였다. 그리고 Duke의 Joseph and Kathleen Bryan Alzheimer's Disease Research Center의 Director이며 Alzheimer형 치매환자의 APOE4 allele screening과 genotyping으로 널리 알려진 신경과 의사인 Dr. Allen Roses의 특강에 참가하여 Alzheimer형 치매환자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접근방법을 경험할 수 있었다.

Alzheimer's Association(AA)라는 미국치매가족회의 North Carolina 주 지부장을 맡고있는 Duke Family Support Program의 head인 Ms. Gwyther의 알쓰하이머 환자가족과 caregiver에 대한 교육과 고통을 분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 그곳에 있으면서 알게된 한국인 간호사가 근무하는 DUMC근처의 알쓰하이머 환자들을 위한 nursing hosp.인 Brian Health & Rehabilitation Center에서의 경험은 노인환자 관리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갖게 했으며 그 간호사의 duty때 같이 병동을 들면서 실질적인 치매환자의 치료 및 care system에 대한 지식을 습득했다. 항상 지나고 나면 후회가 남듯이 내가 좀더 부지런했다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는데라는 아쉬움도 있지만 Duke에서의 경험이 현재 치매환자를 진료하는 나에게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유난히 농구를 좋아하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막내아들 녀석은 Duke대학 농구팀의 단신 Guard인 #12 Steve에게서 받은 sign을 지금도 애지중지한다. 그리고 힘차게 소리친다.

"Go for it! Duke!"

• 노인 정보 •

1999년도 보건복지부 노인복지 국고보조사업 안내

1. 일반현황

○ 노인인구(단위 : 천명)

연도별	60	70	80	90	99
전체인구	25,012	32,241	38,124	42,869	46,858
노인인구	726	991	1,456	2,195	3,204
(%)	(2.9)	(3.1)	(3.8)	(5.1)	(6.8)

※ 자료 : 장래인구 추계(통계청, 1997.1)

○ 평균수명

연도별	60	70	80	90	95	2000	2020
평균	52.4	63.2	65.8	71.6	73.5	74.9	78.1

※ 자료 : 장래인구 추계(통계청, 199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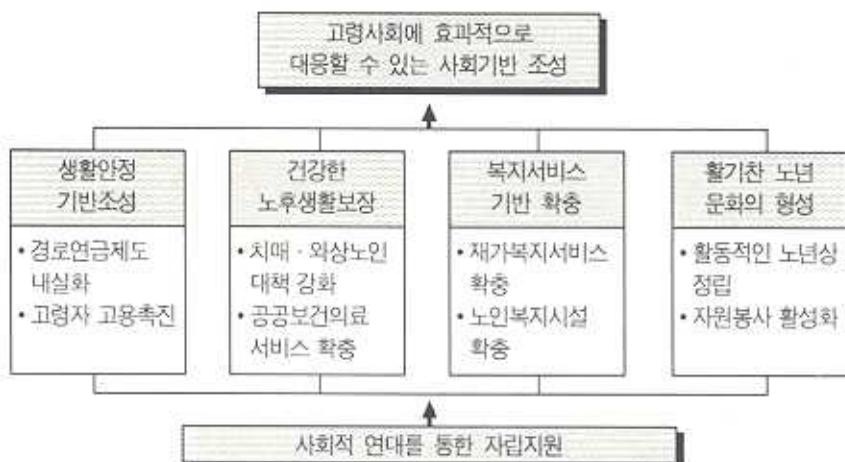
○ 외국의 노인인구비 및 노령화 지수(95년 기준)

	한국	싱가포르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65세이상 노인						
인구비율(%)	5.9	6.7	14.1	12.6	15.2	17.3
노령화지수	25.2	29.5	86.5	57.3	95.0	91.1

※ 자료 : UN 인구동계연감

주) 노령화지수 : (65세이상 인구) / (0~14세 인구) × 100

2. 시책방향



○ 노인복지 대상 및 사업내용의 확대

- 생활보호노인 위주의 사업에서 탈피하여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정책 개발
- 시설수용보호 위주의 사업에서 지역·가정 중심의 복지체계로의 발전 도모

- 노인들이 자원봉사활동 등을 포함하여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정부와民間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상호협조 보완
 - 생활능력 없는 저소득 노인은 국가 지원의 내실화를 통하여 소득·의료·주거 등 기초 생활 보장
 - 경제력있는 노인을 위하여는 민간시장기능을 통한 유료서비스 확충 유도
 - 가정·지역사회 중심의 노인복지체계 발전을 위한 국가지원 및 민간참여 유도
-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접근
 - 노인의 보건·의료·주거 등 다양한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체계 공동 구축
 - 보건교육·건강검진사업 내실화를 통한 노인성 질환의 사전예방
 - 질환 노인의 치료·요양을 위한 시설확충 등 사후관리체계 구축
- 경로사상 양양 및 가정의 노인부양 유지·강화
 - 경로우대제도 확대를 통하여 문화계승자 및 사회의 어른으로서 노인우대 분위기 조성
 - 서구 선진국이 가지지 못하는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산업화 사회의 노인부양기능 약화 추세를 보완

3. 주요사업 추진계획

- 노후소득보장
 - 가. 경로연금지급
 - 나.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지원
 - 다.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확대
- 노인건강 및 재가복지사업
 - 가. 노인건강진단 실시
 - 나. 재가노인복지사업 실시
 - 다. 재가노인복지사업비 지원
- 노인결연사업 확대
- 노인여가활동지원
- 경로효친사상 양양
 - 가.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실시
 - 나. 어버이날 행사실시
 - 다. 경로우대제도
- 노인봉양의식 제고
 - 가. 각종 세제혜택 부여
 - 1) 상속세 공제
 - 2) 소득세 공제
 - 3) 양도소득세 면제(소득세법시행령 제 155조제4항)
 - 나. 노부모 봉양수당 지급
 - 다. 무주택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주택 분양 우선권 부여(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 11조제3항)
- 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지원
- 사할린 영주귀국 노인 생계비 특별지원
-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 국고보조사업 수행지원

4. 노인복지 예산현황

- 노인복지 예산(단위 : 백만원)

	'98 예산	'99예산
합 계	169,081	191,714
재가노인지원	132,251	166,759
노인시설보호	36,830	24,955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internet에서 다음 홈페이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www.mohw.go.kr

• 치료프로그램 •

초정노인병원, 초정치매요양원

강 홍 조 원장

충청북도 청원군 초정은 옛부터 초정약수로 유명한 곳이다. 이곳 약수는 세종대왕의 안질을 낫게 했다고 해서 더욱 유명하다고 한다. 이곳에 약 5300여평의 대지위에 8층의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건축된 초정노인병원은 점차 확산되고 있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치매, 뇌졸중, 만성퇴행성 노인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98년 10월에 개원되었다. 초정병원을 찾는 모든 노인환자들에게 전문적인 병원안내 코디네이터가 병원의 치료 전체 과정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입원환자들에게는 개인별 건강기록부를 작성하여 환자의 병력 및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또한 퇴원환자에게는 가정 간호전문인력을 파견하여 전인간호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환자 질병 및 상태에 따른 음식 간병인 제도를 운영하여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므로 환자 보호자의 간병인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였고 치매환자와 뇌졸중 환자의 전용병동을 운영하여 안락하고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만들고 있다. 초정노인병원은 가정의학과, 내과, 신경정신과, 재활의학과, 한방과 등의 진료과목을 두고 있다. 각 층별로는 1층에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식당을 두고 있으며 2층에는 기능회복실, 검사실, 종합검진실, 3층에 외래진료실, 행정실, 사회사업실이 있고 4층에서 6층까지는 입원실, 7층은 치매병동, 8층은 레크리에이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곧 현대시설의 장의예식장도 갖출 계획으로 있다. 동 재단에서 운영하는 초정치매요양원은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중 치매, 중풍이 있는 환자를 무료로 치료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의 노인환자 관리를 위하여 이동검진차, 이동목욕탕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에 노력하고 있다.

• 신간 안내 •

Aging Body Sourcebook (Health Reference Series)

- Jenifer Swanson(Editor)/Hardcover/Published 1999/\$78.00

Essentials of Clinical Geriatrics

- Robert L. Kane, et al/Paperback/Published 1999/\$25.60

Instructions for Geriatric Patients

- William A. Sodeman/Hardcover/Published 1999/(Not Yet Published)

Reichel's Care of the Elderly: Clinical Aspects of Aging

- Joseph J. Gallo(Editor), William Reichel(Editor)/Hardcover/Published 1999/\$55.01

• 회원동정 •

- … 유계준 이사장은 1999년 2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신석철 고문, 김상국 평이사등과 함께 일본 주꾸바대학, 치매관련시설 견학 및 에자이주식회사 본사 방문후 귀국하였습니다.
- … 관동일 고문은 1999년 4월 12일부터 4월 16일 북경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IPA-Joint Meeting에 Scientific Committee 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논문 발표차 4월 11일 출국합니다.
- … 정인과, 오병훈, 이민수, 김창현, 전진숙, 서국희 회원은 북경 IPA-Joint Meeting에 참가합니다. 정인과, 오병훈, 이민수, 전진숙 회원은 제출한 논문이 심포지움 연제로 채택되었으며, 정인과 회원은 “Postoperative change in mood and cognition of the elderly patients”, 오병훈 회원은 “Correlation of Psychosocial Factors and Cognitive Impairment among the Korean Elderly”, 이민수 회원은 “The Factors Affecting on the Severity of Depressive Symptoms in the Elderly”, 전진숙 회원은 관련 심포지움의 Chair-Person 및 “Characteristics of Korean Elderly Alcoholics”를 발표합니다.
- … 강홍조 회원은 초정노인병원 및 초정치매요양원을 운영중입니다.
연락처 : 충북 청원군 북일면 우산리 192-5 Tel : 0431-213-7123, Fax : 0431-213-7117
- … 이상일 회원은 근무처를 남서울병원 기억장애 및 노인장애 크리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연락처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4-20 남서울병원 기억장애, 노인장애크리닉
Tel : 02-538-3900, Fax : 02-538-3911
- … 김인성 회원은 보건복지부 국립공주정신병원에서 근무하며, 치매센타를 Open하였습니다.
연락처 : 충남 공주시 오곡동 637번지 Tel : 0416-853-2631, Fax : 0416-853-6969
- … 김현수 회원은 부산 대남병원에서 노인병동을 운영중입니다.
연락처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164번지
Tel : 051-324-2227~8(교 211), Fax : 051-311-2227
- … 한승진 회원은 부산 한동대신경정신과의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연락처 :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 2동 43-38
Tel : 051-441-5071, Fax : 051-441-5071
- … 신입회원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98년 10월 9일 이후 가입명단).
김영현, 김영훈, 김현수, 김현수, 김기현, 김경용, 남궁기, 박종호, 서효석, 신명숙, 유상우, 이창인, 안동성, 전지용, 조항석
- … 새로 입회하신 특별회원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영순, 이홍주, 이창길

• 국내외 국제학회개최 안내 • [국제이사회 정보제공]

○ 해외 주요국제학회

- 1) Molecular mechanisms in Alzheimer's disease(Keystone symposia)
일 시 : March 3~8 개최지 : Taos, NM, USA
- 2) American Association of Geriatric Psychiatry(AAGP) 12th Annual Meeting
일 시 : March 14~17 개최지 : New Orleans, USA
- 3)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 Association(IPA) - Beijing Joint Meeting
일 시 : April 12~14 개최지 : 북경, 중국
- 4)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 Association(IPA) 9th Congress
일 시 : August 15~20 개최지 : Vancouver, BC, Canada

○ 국내개최 주요국제학회

- 1) 제6차 아시아 / 오세아니아 지역 노년학 대회
일 시 : 6월 8일 ~ 11일 개최지 :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
- 2) 1999 세계한민족 과학기술자 종합학술대회
일 시 : 7월 6일 ~ 26일 개최지 :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

• 대한노인정신의학회 회원명단(1999년 3월 현재) •

성명	주소	전화번호
강봉선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 2가 335 경북대학병원 정신과	(053) 420-5752
강봉선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206-5 강봉선신경정신과의원	(0371) 44-3884
강홍조	충북 청주시 신봉동 146-7 충북재활원	(0431) 213-7123
고태관	서울 중구 저동 2가 서울백병원 정신과	(02) 2270-0063
고효진	대전시 중구 대흥 2동 520-2 대전성모병원 정신과	(042) 252-9331
곽동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고대부속안암병원 정신과	(02) 920-5940
곽태섭	경남 진주시 대안동 9-7 곽태섭신경정신과의원	(0591) 43-8875
권기철	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299-3 권기철신경정신과	(02) 738-6621
기백석	서울 중구 필동 2가 82-1 중앙의대부속 필동병원 정신과	(02) 2260-2254
김갑중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40-68 한일병원	(042) 625-3001
김경식	서울 관악구 신림8동 1655-21 김경식신경정신과의원	(02) 854-2131
김광식	서울 광진구 쟁곡동 166-17	(02) 467-2323
김관윤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220-4 김신경정신과의원	(0391) 648-2152
김규태	경북 점촌시 중앙동 244-17 김규태신경진과의원	(0581) 52-1072
김도관	서울 강남구 일원동 50 삼성의료원 정신과	(02) 3410-3588
김도훈	경기도 광주군 읍 탄벌리 696-6 연세의대 광주세브란스병원	(0347) 61-1890
김동욱	전남 목포시 산정동 97 성글품반병원 장신과	(0631) 70-1268
김상국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산27-2 인천신경정신병원	(032) 562-5101
김상덕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동 105-51 영진의원	(051) 522-1571
김성수	군산시 개정동 413-3 군산개정병원	(0654) 450-1166
김승기	경북 영주시 영주 4동 528-31 김신경정신과의원	(0572) 635-3890
김승현	서울 구로구 구로동 80 고대구로병원 정신과	(02) 818-6740
김영철	서울 양천구 목동 911-1 이대목동병원 정신과	(02) 650-5018
김영돈	대전광역시 중구 목동 24-14 을지대학병원 정신과	(042) 259-1256
김영현	서울 노원구 상계동 649-2 고려플라자 208호 김영현정신과	(02) 952-3735
김영훈	부산광역시 진구 개금 1동 633-165 부산백병원 정신과	(051) 890-6387
김용구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고대안암병원 정신과	(02) 920-5114
김유광	서울 마포구 서교동 372-9 김유광신경정신과의원	(02) 322-0082
김용희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상하리 4 용인정신병원	(0331) 2280-606
김인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고대부속안암병원 정신과	(02) 920-5815
김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가 300 예수병원	(0652) 272-7676
김준홍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 4가 12 메리놀병원 정신과	(051) 461-2335
김진세	서울 구로구 구로동 80 고대부속구로병원 정신과	(02) 818-6139
김찬협	서울 강남구 도곡동 146-92 영동세브란스병원 정신과	(02) 3450-2382
김창현	서울 중구 을지로6가 18-79 국립의료원 정신과	(02) 2260-7292
김현수	서울 송파구 풍납동 388-1 서울중앙병원 정신과	(02) 2214-3413
김현수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164 동인노인병원	(051) 324-2227
김현식	서울 은평구 용암동 산6 시립정신병원	(02) 303-9111

성명	주소	전화번호
김현우	충남 천안시 암서동 산29 단국의대병원 정신과	(0417) 550-3929
남궁기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탄벌리 696-6 광주세브란스병원	(0347) 761-1890
남범우	서울 중구 편동 2가 82-1 중대필동병원 정신과	(02) 2260-2172
노만희	서울 용산구 한남동 657-59 백제병원	(02) 793-0945
도규영	서울 서초구 반포동 505 강남성모병원 정신과	(02) 590-1533
류미경	경기 이천군 마장면 표고리 115 성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	(0336) 636-8200
류성훈	충남 논산군 논산읍 치암리 21-14 백제병원	(0461) 33-2191
문희원	경남 마산시 합포구 회운동 5-87 제일 신경정신과의원	(0551) 48-4845
민경준	서울 중구 편동 2가 82-1 중대필동병원 정신과	(02) 2260-2172
박경우	충남 공주시 심관동 172 국립공주정신병원	(0416) 53-2631
박노택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91-262 박신경정신과의원	(02) 923-7610
박동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1동 808-3 해운대 성심병원	(051) 743-5555
박동철	경기도 안양시 안양5동 622-221 박동철 신경정신과 의원	(0343) 44-3083
박인철	전북 이리시 동산동 144-23 원광의대 부속 제2병원	(0653) 52-9111
박수용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상하리 4 용인정신병원	(0335) 281-8251
박영순	서울 강남구 역삼 1동 667-16 (주)온누리건강가족복지회	(02) 569-5662
박인숙	경기 광명시 철산4동 483-7 철산빌딩 고려신경정신과의원	(02) 617-7575
박인준	경북 구미시 구미순천향 대학병원 정신과	(0546) 463-7151
박정수	서울 광진구 중곡1동 165-5 동화신경정신과	(02) 466-7654
박종한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도 계명의대 부속 동산병원 정신과	(053) 650-4785
박종호	전북 익산시 남중동 1가 170-17 박종호신경정신과	(0653) 857-7866
박주형	서울 중구 읍지로4가 161-5 덕윤빌딩 202호 박주형신경정신과의원	(02) 2275-5722
박준형	전남 순천시 중앙동 61-69 박준형 신경정신과 의원	(0661) 51-1053
박청선	서울 성동구 화양동 27-2 전국의대 민중병원 정신과	(02) 450-9558
박희정	서울 광진구 중곡 3동 30-1 국립서울정신병원	(02) 2204-0334
반건호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 경희의료원 신경정신과	(02) 958-8545
방필영	대구광역시 중구 상서동 40 방필영 신경정신과 의원	(053) 23-6610
배재남	인천광역시 중구 선홍동 3가 정석빌딩 인하대학병원 정신과	(032) 888-7586
백명기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494-2 우창프라자 307호 백명기신경정신	(02) 340-9940
백인호	서울 서초구 반포동 505 가톨릭대학 강남성모병원 정신과	(02) 590-1378
서원벽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4동 453-18 서원벽 신경정신과의원	(032) 432-9911
서효석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원동 748 대구보훈병원 정신과	(053) 636-1771
신명숙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367-5	(053) 791-7877
신상철	경기도 남양주군 소동면 외방리 174	(0346) 591-6661
신석철	대전시 중구 대사동 640 충남대 병원 정신과	(042) 220-7287
신재정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46 청량리 정신병원	(02) 965-1171
심상호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1동 172-22 고려신경정신과의원	(0351) 43-7847
안동성	경남 마산시 회원구 내서읍 호계리 362-1 마산동서병원	(0551) 267-3910
안병주	경기도 부천시 중구 내동 202-4 청암약국	(032) 674-7400
안찬호	서울 동대문구 체기2동 142-3 한창학 신경정신과의원	(02) 928-7878
연규월	서울 종로구 6가 70 이대부속 병원 신경정신과	(02) 760-5086

성명	주소	전화번호
연 병 길	서울 강동구 길동 445 강동성심병원 정신과	(02) 2224-2268
오 강 섭	서울 종로구 평동 108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	(02) 739-3211
오 길 성	서울 성북구 삼선동 5가 291-1 오길성 신경정신과 의원	(02) 923-3237
오 병 훈	경기도 광주군, 읍 탄벌리 696-6 광주세브란스정신병원	(0347) 765-0442
오 봉 주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90-33 청안빌딩 오봉주신경정신과의	(062) 526-8200
오 석 환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 반포아파트 54-501	(02) 599-8486
왕 성 근	대전시 중구 대사동 640 충남대 병원 정신과	(042) 220-7278
우 성 일	경남 진주시 칠암동 90 경상대병원 정신과	(0591) 750-8084
우 정 훈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5 울곡병원	(051) 861-8111
우 종 인	서울 종로구 연건동 28 서울대학병원 정신과	(02) 760-2458
우 행 원	서울 종로구 종로6가 70 이화대학병원 정신과	(02) 760-5065
유 계 준	경기도 광주군, 읍 탄벌리 696-6 광주세브란스정신병원	(0347) 765-0443
유 상 우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6 한림대병원 정신과	(0343) 380-3750
유 완 상	충북 청주시 문화동 106-4 유완상 신경정신과의원	(0431) 52-7895
유 원 달	충남 보령시 대천동 192-1 성심신경정신과의원	(0452) 935-9911
윤 영 창	전북 군산시 중앙로 1가 9-4 윤신경정신과의원	(0654) 446-9618
윤 애 리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845 보성프라자 3층 윤정신과의원	(0345) 453-7575
윤 진 상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8 전남대병원 정신과	(062) 220-6142
은 흥 배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산 2-20 전북대학병원 정신과	(0652) 250-1396
이 경 규	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 29 단국의대병원 정신과	(0471) 550-3929
이 경 섭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109 화성프라자 4층 이경섭신경정신과	(0334) 915-8834
이 근 후	서울 종로구 종로6가 70 이화대학병원 정신과	(02) 760-5138
이 기 준	경남 진주시 동산동 213-16 진주신경정신과	(0591) 411-4228
이 민 수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26-1 고려의대 안암병원 정신과	(02) 920-5815
이 병 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1가 11 성모 신경정신과의원	(0551) 83-7373
이 상 연	서울 종로구 평동 164 서울적십자병원 정신과	(02) 398-9418
이 상 열	전북 익산시 동산동 144-23 원광의대 부속병원 정신과	(0653) 840-6019
이 성 민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3구 112-37 이성민신경정신과	(0475) 33-5435
이 수 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1동 548 강남성심병원 정신과	(02) 833-3781
이 영 호	서울 중구 저동 2가 85 서울백병원 정신과	(02) 2270-0063
이 인 표	서울 송파구 송파2동 185 가락신경정신과의원	(02) 425-2045
이 정 호	서울 노원구 상계7동 761-1 인제의대 상계백병원 정신과	(02) 950-1083
이 종 섭	충북 충주시 교현동 620-5 건국의대 부속병원 정신과	(0441) 845-2501
이 종 육	경남 마산시 회원구 합성동 722-5 이종육 신경정신과	(0551) 55-6688
이 창 길	서울 강남구 역삼 1동 667-16 (주)온누리건강가족복지회	(02) 569-5662
이 창 영	부산광역시 북구 학장동 164 부산대남병원	(051) 324-2227
이 창 육	서울 서초구 반포동 505 강남성모병원 정신과	(02) 590-1533
이 창 인	제주도 제주시 삼도1동 560 영재빌딩 3층 한빛신경정신과	(064) 58-3878
이 철	서울 서초구 반포동 505 가톨릭대학 강남성모병원 정신과	(02) 590-1531
이 충 경	서울 광진구 중곡3동 30-1 국립서울정신병원	(02) 2204-0100

노인에게 효도와 공경을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충숙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40-68 대전 한일병원 정신과	(042) 625-3001
이현재	서울 종로구 종로 1가 17 북창빌딩 2층 이현재 정신과의원	(02) 735-7557
이홍식	서울 강남구 도곡동 146-92 영동세브란스병원 정신과	(02) 3450-2381
이홍주	서울 강남구 역삼 1동 667-16(주) 온누리건강가족복지회	(02) 569-5662
이형영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8 전남대학병원 정신과	(062) 227-0011
이희상	경기도 광주군 · 읍 탄벌리 696-6 광주세브란스병원	(0347) 61-1890
임원정	서울 종로구 6가 70 이화대학병원정신과	(02) 760-5210
전지용	서울 서초구 양재동 250-4 유순형신경정신과의원	(02) 579-7841
전진숙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34 고신의료원 신경정신과	(051) 240-6245
장덕환	수원시 팔달로 2가 129-5 장덕환신경정신과	(0331) 47-0555
장안기	서울 광진구 중곡3동 30-1 국립서울정신병원	(02) 2204-0107
정상근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2-20 전북대학병원 정신과	(0652) 250-1894
정성덕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5동 317-1 영남대학병원 정신과	(053) 620-3340
정은기	서울 광진구 중곡3동 30-1 국립서울정신병원	(02) 2204-0104
정인과	서울 구로구 구로동 80 고대 구로병원 정신과	(02) 818-6738
정한용	서울 용산구 한남동 657 순천향대학병원 정신과	(02) 709-9230
조남현	전남 나주시 산포면 산재리 501 국립나주정신병원	(0613) 30-4114
조두영	서울 종로구 연건동 28 서울대병원 정신과	(02) 760-2457
조맹제	서울 종로구 연건동 28 서울대병원 정신과	(02) 760-3155
조성남	충남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 1 법무부 치료감호병원	(0416) 857-2601
조숙행	서울 구로구 구로동 80 고대 구로병원 정신과	(02) 864-5111
조완숙	서울 종로구 세종로 1가 157 박종철신경정신과의원	(02) 735-0987
조항석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697-24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0344) 962-6900
지의성	대전시 중구 대사동 640 충남대학병원 정신과	(042) 220-7291
채정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2 가톨릭대학 성모병원 정신과	(02) 789-1250
최문식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46 청량리 정신병원	(02) 965-1171
최인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94-200 한강성심병원 정신과	(02) 639-5460
최종혁	서울 광진구 중곡3동 30-1 국립서울정신병원	(02) 2204-0357
최중철	경기도 오산시오산동 603-11 용산빌딩3층 최중철신경정신과	(0339) 73-9966
한동대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2동 43-38 한동대 신경정신과의원	(051) 441-5071
한상우	서울 용산구 한남동 657 순천향의대 정신과	(02) 709-9230
한상엽	서울 종로구 평창동 244-25 한상엽 신경정신과의원	(02) 732-2662
한선호	서울 용산구 한남동 657 순천향의대 정신과	(02) 709-9231
한일우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상하리 4 용인정신병원	(0331) 2880-600
한창학	서울 동대문구 제기2동 142-3 한창학 신경정신과의원	(02) 928-7878
한봉진	경기 남양주군 소동면 외방리 174 축령복음병원	(0346) 591-6661
홍관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775 명지대 새마음병원신경정신과	(02) 364-8251
황연화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565 보건소	(0336) 72-4518
황의근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34-18 전북대병원 정신과	(0652) 250-1390

大韓老人精神醫學會 任員陣 (1999~2000)

	TEL	FAX	E-MAIL
顧問：郭東日 申石澈 李亨榮	02) 920-5940 · 920-6005 042) 220-7287 062) 220-6140	02) 927-2836 042) 220-7886 062) 225-2351	shinsc@hanbat.chungnam.ac.kr hylee@chonnam.chonnam.ac.kr yspsy@chollian.net
理事長：俞桂濬 次期理事長：李正浩 部理事長：李祥淵 朴宗漢	0347) 765-0443 02) 950-1083 · 950-1906 02) 398-9418 053) 650-4785	0347) 761-7582 02) 936-8069 02) 722-3832 053) 623-7507	srchnp00@chollian.net
監事：韓東大 鄭寅果	051) 441-5071 02) 818-6738	051) 441-5071 02) 852-1937	
總務理事會 實行理事：吳秉勳 平理事：田珍淑 南宮綺 閔慶俊 實務委員：李相壹 柳尚遇	0347) 765-0442 051) 240-6245 · 250-5070 0347) 761-1890~3(교111) 02) 2260-2282 02) 538-3900(교304) 0343) 380-3750	0347) 761-7582 051) 241-5069 0347) 761-7582 02) 279-8474 02) 538-3911 0343) 380-3752	drobh@chollian.net keenk@chollian.net mind61@chollian.net wds98@hitel.net swyoo@yumc.yonsei.ac.kr
學術理事會： 實行理事：延炳吉 平理事：金暎薰 金承賢 實務委員：徐國熙 都圭永	02) 2224-2268 051) 890-6387 02) 818-6740 02) 639-5204 02) 590-1533	02) 487-0544 051) 893-7233 02) 852-1937 02) 677-9095 02) 594-3870	knpa@www.hallym.or.kr guiboon@chollian.net suhgh@chollian.net cumcpsy@hitel.net
教育理事會： 實行理事：李敏秀 平理事：金相國 金隆喜 實務委員：金鎮世 金弦壽	02) 920-5354 032) 562-5101~7 0331) 2880-606 02) 818-6139 · 818-6140 051) 324-2227~8(교211)	02) 923-3507 032) 566-4336 0331) 2880-519 02) 852-1937 051) 311-2227	leeminso@unitel.co.kr hwy827@unitel.co.kr kjinse@unitel.co.kr
企劃理事會： 實行理事：鄭恩基 平理事：趙成男 崔鍾赫 實務委員：朴希貞	02) 2204-0104 0416) 857-9095 · 857-2601 02) 2204-0357 02) 2204-0334	02) 3436-0895 0416) 856-0163 02) 458-0731 02) 458-0731	ekchg@unitel.co.kr sncho@chollian.net bellshin@unitel.co.kr hjdoc@netsgo.com
涉外理事會 實行理事：奇栢錫 平理事：金榮敦 崔仁根 實務委員：南範祐	02) 2260-2254 042) 259-1256 02) 639-5460 · 639-5462 02) 2260-2172	02) 279-8474 042) 861-8918(h) 02) 677-9095 02) 279-8474	cauhpkbs@cau.ac.kr ydkim@emc.eulji.ac.kr ihngeun@shinbiro.com
國際理事會： 實行理事：李哲 平理事：尹秦相 禹誠一 實務委員：李昶旭	02) 590-1531 062) 220-6142 · 220-6146 0591) 750-8084 · 750-8087 02) 590-1533	02) 594-3870 062) 225-2351 0591) 759-0003 02) 594-3870	jsyoon@chonnam.chonnam.ac.kr siwoo@gshp.gsnu.ac.kr cumcpsy@chollian.dacom.co.kr

	TEL	FAX	E-MAIL
平理事 : 鄭聖德 禹幸源 姜弘造 金 稔 金憲秀 金昌鉉 田珍淑 尹泰相 金啖薰 金相國 趙成男 崔仁根 韓一字 金榮敦 金承賢 金隆喜 崔鍾赫 禹誠一 南宮綺 閔慶俊	053) 620-3341 02) 760-5065 0431) 213-7123 0652) 272-7676, 7890 02) 2224-3413 02) 260-7296 051) 240-6245 · 250-5070 062) 220-6142 · 220-6146 051) 890-6387 032) 562-5101~7 0416) 857-9095 · 857-2601 02) 639-5460 · 639-5462 0331) 2880-600 042) 259-1256 02) 818-6740 0331) 2880-606 02) 2204-0357 0591) 750-8084 · 750-8087 0347) 761-1890~3(교111) 02) 2260-2172	053) 629-0256 02) 760-5492 0431) 213-7117 0652) 272-7890 02) 485-8381 02) 268-5028 051) 241-5069 062) 225-2351 051) 893-7233 032) 566-4336 0416) 856-0163 02) 677-9095 0331) 2880-539 042) 861-8918 02) 852-1937 0331) 2880-519 02) 458-0731 0591) 759-0003 0347) 761-7582 02) 279-8474	AJ008@chollian.net hskim@www.amc.seoul.kr DRLIMHJA@unitel.co.kr jsyoon@chonnam.chonnam.ac.kr sncho@chollian.net ihngeum@shinbiro.com ydkgm@emc.eulji.ac.kr guiboon@chollian.net hwy827@unitel.co.kr bellshin@unitel.co.kr siwoo@gshp.gsnu.ac.kr keenk@chollian.net mind61@chollian.net
編輯委員會 編輯委員 : 趙孟劑 朴宗漢 吳秉勳 李敏秀 金昌鉉 徐國熙	02) 760-3155 053) 650-4785 · 650-4282 0347) 765-0442 02) 920-5354 02) 260-7296 02) 639-5204	02) 744-7241 053) 623-7507 0347) 761-7582 02) 923-3507 02) 268-5028 02) 677-9095	mjcho@plaza.snu.ac.kr drobh@chollian.net leeminso@unitel.co.kr DRLIMHJA@unitel.co.kr suhgh@chollian.net

• 「노인정신의학(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Geriatric Psychiatry)」 투고 규정 안내 •

대한노인정신의학회에서는 매년 2회(6월, 12월) 연구학회지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 논문 접수처 ||||

110-744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조 맹 제 교수
TEL : 02-760-3155
FAX : 02-744-7241
E-mail : mjcho@plaza.snu.ac.kr

■ 논문제출요령 및 기타 공지사항

- 투고요령은 개정된(97. 1) 신경정신의학회지와 동일하다.
- 논문원고는 마감일 없이 수시로 접수한다.
- 원고는 A4 용지에 2열 간격으로 인쇄한 것을 2부 논문 접수처로 제출한다.
- 동일한 내용의 원고를 3.5인치 디스켓으로 함께 제출 한다.

• 회비납부 안내 •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온라인 계좌번호
예금주 : 오 병 훈(연회비 : 2만원)
국민은행 : 275-21-0187-241



1998년도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일 시 : 1998년 10월 9일 (금)

장 소 : 가톨릭의대 의과학연구소